



#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전국 전투영웅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2(1953)년 8월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39(1950)년 11월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2(1953)년 7월



기계화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39(1950)년 5월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2(1953)년 8월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0(1951)년 6월



해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0(1951)년 12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0(1951)년 6월



↑ 전투훈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1(1952)년 6월  
←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0(1951)년 4월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현영철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량철성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는 뜻깊은 날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가슴은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끝없이 빛내여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지략, 비범한 령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어 이 세상 가장 포악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쳐물리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으신 회세의 천출명장,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날강도 미제와 싸워 이긴 영웅적대, 영웅적인 민으로, 우리 조국은 영원한 전승국으로 온 세상에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 태양조선의 미래는 천만년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

회세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락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반세기 가 넘는 장구한 기간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생산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1950년대의 전승과 더불어 민족사에 찬란히 아로새겨 질 거대한 업적이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기와 세대는 바뀌었지만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출애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

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7.27전승업적과 선군혁명승리의 업적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미제가 기어이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킨다면 민족의 속망이 무겁게 실린 계급의 총대, 정의의 총대로 원수들을 썬도 없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7.27전승기적은 최후승리의 기적으로, 선군조선의 영원한 기적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본사정치보도반

본사정치보도반

본사정치보도반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

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

황병서동지, 오금철동지, 윤동현동지, 박정천동지, 최룡해동지, 리재일동지, 한광상동지, 김영훈동지, 리종무동

지가 경기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자기들의 경기모습을 보여드리는 한없는 긍지와 행복으로 하여 선수들과 감독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동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우리 당의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꾸준히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였다.

4 번 으 로 계 속

4 번 으 로 계 속

4 번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미국놈들의 항복서를 받아낸 이 나라 천만군민이 61년전 승리의 7.27을 미제의 최후 멸망을 선고할 새 세기 승리의 7.27로 만들 억척불변의 결심을 품고 뜻깊은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윤동현동지, 리병철동지, 오금철동지,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 발사훈련에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라격부대가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상장 김경동지를 비롯한 화력라격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기지의 현 배치상태와 그를 타격 소멸할수 있게 가상하여 세운 발사계획을 보아주시신 다음 로켓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이날 훈련에서도 화력라격부대의 전투력과 기술로켓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근

에 주체적인 로켓과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발사훈련을 많이 진행한 결과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라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하시면서

전승절을 맞으며 러친 이번 화력라격훈련의 폭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과도 같다고 하시며 전략군의 거듭되는 훈련성공에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력사는 결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낼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놈들이 7.27을 맞으며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패전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명분도 똑똑하지

명줄을 영영 끊어버리고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조국통일대전승리의 축포성으로 이어갈 결사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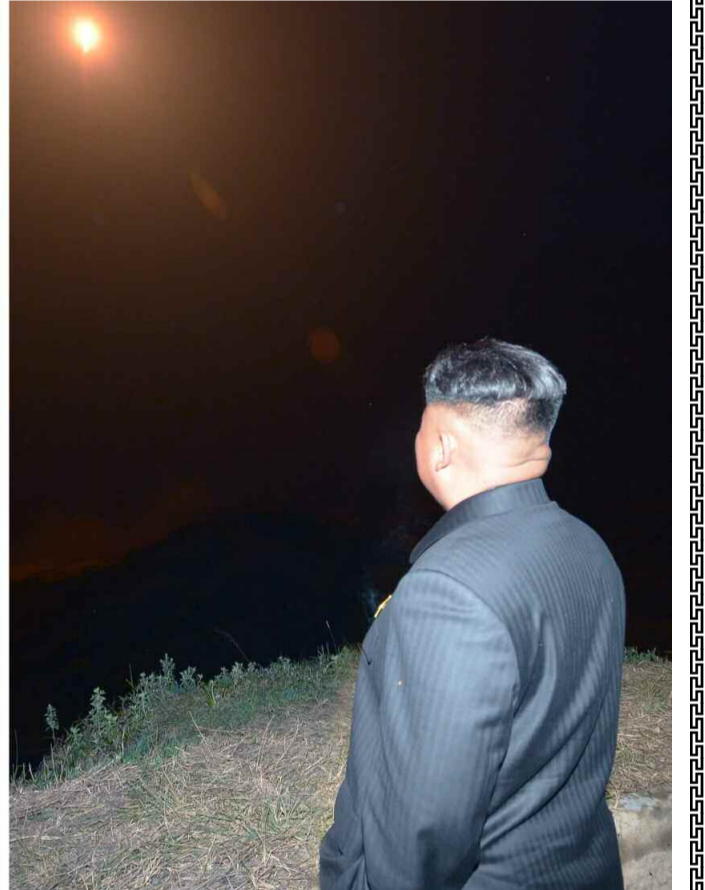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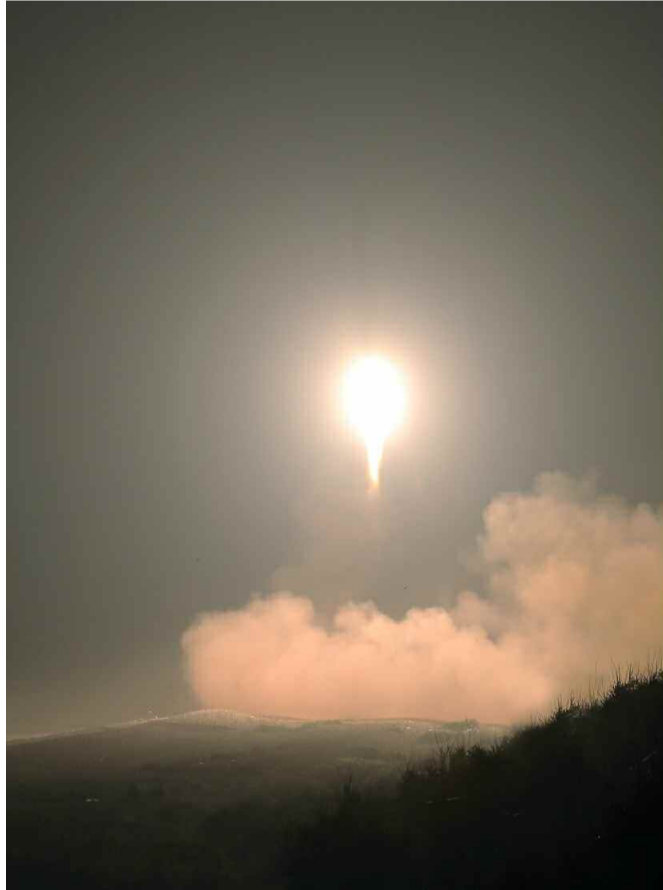


못한 오바마의 《포고문》과 박근혜의 그 무슨 《대통령기념사》로 폐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해피한 광대놀음까지 벌리고있다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주인들은 계속 교체되었지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으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었고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하시며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무리들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전체 장병들은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비롯한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의 더러운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4.25팀과 압록강팀간의 남자배구경기를 보시였다



3 면 에서 계속

두 팀 선수들은 경기를 통하여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의 백철불굴의 완강한 의지,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과시하였다.

경기에서는 4.25팀이 압록강팀을 이겼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배구선수들이 수준이 높은 경기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경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식의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기술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 끌어올림으로써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성공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선수들과 감독들은 자기들의 경기를 몸소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당의 체육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6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제2의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천만 군민은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신 백두산대국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맛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령도가 있어 식민지배에서 갓 벗어난 나라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때려부신 영웅의 나라, 영웅인민으로 온 세상에 자랑될치게 되었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전승을 마련해주신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원수복을 입으시고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모셔져 있었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신 크나큰 공지와 환희에 넘쳐 승리의 고지에서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울리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주석단배경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심주체 《승리》상도형과 《전승 61돐》 그리고 《7.27》

이라는 글자들이 걸려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애 나붙어있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애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전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영웅, 전쟁로병, 제대군인, 인민군후방가족, 공로자,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체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외국순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김로동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전쟁로병들, 영웅,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

대장 현영철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여주신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 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과 불패의 군민대단결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대회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 승리의 7.27은 백두산대국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전군을 다그쳐 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주체 42(1963)년 7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전승을 이룩한것은 조선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인류해방 위업수행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이었습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반체투쟁사에는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시키고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조국평화에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찬연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이 뜻있는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업에 따라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사공로자들을 열렬히 추모합니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전체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7.27은 우리 민족의 제2의 해방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고된 생명을 바친 인민군용사들과 애국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7월 27일은 선군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위대한 승리의 명절입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7.27의 의의는 더욱더 부각되고있으며 미제와 싸워이긴 1950년대의 불굴의 정신, 승리의 공지와 존엄은 우리 세대에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적들의 침략야망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반미대결전에서 충국적승리를 이룩할 신념과 의지를 더 굳게 하여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수령님께서 간고한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7.27은 우리 민족의 제2의 해방의

날이며 반체투쟁의 새로운 장을 아로세길 력사적승리의 날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거렬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그들의 침략 무력과 15개 추종국가군대들, 남조선피뢰군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막대한 병력과 전쟁 장비들을 총동원하였으며 온갖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체 조선민족을 노예화하기 위하여 피를 물고 날뛰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결사항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3년간의 전쟁에서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정치군사적, 정신도덕적참패를 안기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력사는 우리 공화국처럼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나라가 력량관계에서 대비조차 되지 않는 강대하고 포악무도한 침략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이긴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혁명의 전위들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온 세상에 자랑될치게 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미제의 제3차 세계대전도발책동을 파탄시키고 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였으며 반체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장거였습니다.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고 그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식민지여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추진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중공정복패를 촉진시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의 7.27은 백두산대국의 강철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뜻깊은 승리의 날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전체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명활무쌍한 전법들을 창조하시어 전쟁의 전행정에서 인민군대의 확고한 전략전술적우세를 보장하시었습니다. 적들의 불의적인 침공에 대처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전쟁승리의 요인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고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전쟁에 전인민적인 해방전쟁으로 맞서 싸우며 정치사상적, 우월성으로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격파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리론들은 전쟁승리의 위력한 기초로 되었습니다. 전체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명활무쌍한 전법들을 창조하시어 전쟁의 전행정에서 인민군대의 확고한 전략전술적우세를 보장하시었습니다. 적들의 불의적인 침공에 대처한

즉시적인 반공적전략과 대담한 포위섬멸전, 정구부대들에 의한 적후 2전선의 형성, 갱도전과 비행기사냥군 조운동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과 전술, 전법들은 그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것으로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침략자들을 수세에 몰아넣게 하였습다.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을 쉬임없이 찾으면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무적의 용맹을 안겨주시고 친어비의 뜨거운 사랑을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서울과 대전, 월미도와 1211고지를 비롯한 싸움터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을 남게 한 근본원

인이었습니다. 식민지배에서 갓 벗어난 청소년 나라와 인민을 이끄시어 강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쳐물리치는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은 현대전쟁사의 빛나는 귀감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이며 명활무쌍한 전승명도사는 오늘날 세계의 전쟁사들과 군사전략가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지배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고 투쟁의 진로를 찾고있습니다. 6 번 으 로 계속







